

<권리존중론> 11장 자유와 자유주의 Liberty and Liberalism

저자: 로널드 드워킨

요약번역자: 이한

1 존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에세이인 <자유론>은 대체로 자유주의자보다는 보수주의에게 봉사해왔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은 자유론을 자유주의 이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철학적 옹호라고 즐겨 인용하고서는, 그 논변에 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자유주의는 결함이 있다고 논한다. 게르트루드 힘멜파브(Gertrude Himmelfarb)는 『자유와 자유주의 : 존스튜어트 밀의 논거 In Liberty and Liberalism : The Case of John Stuart Mill』이라는 논문에서 밀의 자유론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데,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그녀는 밀의 논변을 공격하지 않고, 밀 자신이 스스로의 주장에 반했다는 인신공격(ad hominem)을 펼친다. 그녀는 밀이 다른 저술에서, 자유론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전제를 비난했다고 말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수년 전에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힘멜파브는 이 논점을 밀의 자유론 1962년 수정판에서 건드렸던 바 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논리를 훨씬 상세히 개선하고 있다.

2 만약 그녀가 생각하듯이 자유론이 그 저작 이전과 그 이후에 밀이 썼던 모든 것의 본질에 어긋난다면, 왜 밀이 그토록 시간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를 반박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밀이 해리엇 테일러 Harriet Taylor와 오랫동안 교제해왔다는 점에서 찾았다. 테일러는 자유론이 저술될 당시 밀의 아내였다. 비록 자유론이 출간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말이다. 밀은 자유론의 저술과 관해 터무니없을만큼 그녀를 칭송하며 그 책을 헌사했다. 밀은 테일러의 사상이 그 저작을 고취했으며, 초안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긴 작업에서 능동적인 협력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힘멜파브는 밀의 이같은 진술마저도 과소평가라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몰고 가게 했던 작업의 지배적인 파트너였다고 한다. 힘멜파브는, 자유론을 쓰게 만들었던 테일러의 격분이 빅토리아시대 영국에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종속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한다. 여성의 종속은 자유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테일러에게는 대단히 큰 관심사였다.

3 그러나 테일러가 밀의 마음을 지배하였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유일한 논변은, 밀의 생각에서 보이는 비밀관성을 설명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 뿐이다. 자유론 텍스트상으로도 그렇다는 증거가 없고 또 외부적으로도 다른 직접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다. 힘멜파브는 텍스트 상에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동저술작업이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외부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밀이 자유론을 쓰던 시기에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냈으며 둘러댄다. 만일 자유론과 밀의 다른 저작 사이에 어떠한 진정한 비밀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멜파브의 흥미로운 추론을 지지할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4 힘멜파브가 비밀관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밀은 자유론에서만 자유에 대해 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책과 논문에서도 이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밀의 자서전과 그의 초기

작인 “시대정신”, 콜러리지에 대한 유명한 에세이 그리고 공리주의에 대한 주된 저술이 포함된다. 이 다른 저술들에서, 밀은 정치이론에서 복잡성과 역사주의를 옹호했다고 한다. 밀은 공리주의의 아버지인 벤담을 사회심리학과 정치이론을 단순한 공리(公理)로 환원시켰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밀은 인간본성에 대한 비판주의적 이론을 채택하면서도 이기주의에 가해지는 문화적 역사적 제약을 강조했으며, 시민들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양심으로 향하도록 교육시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5 그러나 힘멜파브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론은 다른 저술들에서 강조된 위 각 명제와 상치된다. 자유론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시작된다.

“한 가지 단순한 원리, 개인에게 강제를 가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통치할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는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자기보호 뿐이라는 것이다. 권력이 문명 공동체의 성원에게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의 선은, 물리적인 것이건 도덕적인 것이건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

6 힘멜파브는 우선, 위 주장의 절대적 논조를 비판한다. 그녀는 밀이 사회와 개인의 복잡한 관계를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리로’ ‘절대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밀 자신이 세심하고 세련되게 주장했던 명제들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 단순한 원리가 자유를 내세우는 ‘극단적인’ 주장으로서 보다 밀 자신다운, 전통과 교육에 관하여 펼쳐왔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녀에 따르면 <자유론>은 개인들이 ‘그들의 개인적 욕망, 충동, 경향, 의지’를 보상하고 진작시킬 것을 고무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든 선의 원천으로, 개인과 사회의 복지 뒤에 놓여 있는 힘으로 본다고 한다. 자유론은, 개인보다 더 고상한 더 가치있는 주체는 없으며 개인을 지혜와 덕의 보고로 보고 개인의 자유를 사회정책의 유일한 목적으로 만드는 철학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을 통해 덕과 탁월성을 성취한다는 밀 자신의 철학에 모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7 힘멜파브의 논변은 도저히 만회불가능한 큰 실수와 함께 시작한다. 그녀의 논변은 원리의 힘을 원리의 적용 범위와 혼동한다. 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인간본성과 효용에 관한 벤담의 이론은 그 범위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다(모든 사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벤담은 모든 인간 행동과 결정이 쾌락과 고통에 대한 모종의 계산에 의해 추동된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정치적 결정이 동일한 계산, 즉 공동체 전체의 쾌락에서 고통을 차감한 양의 극대화를 모도하는 계산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8 그러나 자유론에서 개진한 밀의 원리는 매우 제한된 적용범위만을 갖는다. 그 원리는 상대적으로 드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같이 행위자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동성애나 포르노그래피를 출판하고 열람하는 것처럼 도덕에 대한 공동체의 표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결정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정부의 사업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다. 그 원리는 정부가 소득, 안전, 권력 같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또 심지어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할 때가 언제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밀의 원리는 예를 들어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국방의 효율성 저하의 대가를 치르고도 존중할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재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허용할지, 토지사용자의 자유를 그가 발생시키는 폐에도 불구하고 존중할지 정부가 결정하는 데 아무런 참고가 되지 않는다.

0 원리의 적용범위가 좁게 제한될수록, 그 원리는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장 섬세한 철학자조차 정부가 까닭 없이 시민 중 어딘 집단을 모욕하는 것은 항상 그른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밀은 그의 원리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한된 좁은 범위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이 점에서 오류를 저질렀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밀이 단순한 정신을 지녔다거나 자신의 신조에 광신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 힘멜파브가 밀 원리의 적용범위와 힘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책 마지막 부분에 기이한 논변이 등장하게 되었다. 몇해전 그녀는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절대 자유는 절대 부패한다’는 것과 신중함과 중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도 경솔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여 자유의 원리를 포함한 다른 원리 모두를 위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녀의 설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밀과 사회의 무질서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시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그녀는 급진적인 ‘반문화’가 자발성을 찬미하는데 그것도 밀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문화’의 언어가 공동체를 개별성보다 더 강조한다는 점은 그녀도 인정하는 바이다. 힘멜파브는 반문화의 지지자들이 자유주의 일반을 특히 밀을 특별한 경멸감을 갖고 대했으며 마르쿠제 같은 저자를 훨씬 선호 했다는 점, 마르쿠제의 자유론에 대한 적대감을 친밀하게 느꼈다는 점을 덧붙였을지도 모른다.

11 사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녀가 드는 다른 것들은 성적 노골성의 친숙한 예들에 한정되어 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완화되고 <목구멍 깊숙이 Deep Throat>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몇몇 도시에서 상영된 것은 사실이며 또 예전보다 해변에 발가벗고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은 어떠한 정의의 원리도 위협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의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Shockley 교수의 발언(멍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보다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유전적 퇴락으로 인해 문명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한 교수-이를 주제로 한 코미디영화도 있다-, 물론 그 교수의 발언은 매우 인기가 없는 것이었다)을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우리가 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관심만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힘멜파브는 성에 관한 습속(sexual mores)에서 나타난 이들 변화가 전반적인 사회의 무정부성과 탈법으로 향하는 전조나 증상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밀이 자유라는 새롭고 소비될 수 있는 사상을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밀의 구분, 즉 자기관여적 행동과 타인관여적 행동은

밀 자신의 이 부패하기 쉬운 사상을 담아내기 위한 단순히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구분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밀이 제시한 자유사상은 곧 폭력과 무정부주의로 팽창하여 절대적 자유가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절대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밀의 원리가 이같이 내적인 논리와 필연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 밀 원리가 그 힘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적용범위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은 그녀의 책에서 맨 마지막 삼분의 일을 점철시킨 수사들을 설명해준다.

13 그러나 그녀의 논변은 다른 많은 결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론>에 대한 심대한 오독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그녀는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된 행위의 영역으로서의 자유 liberty as license 와 독립으로서의 자유 liberty as independence 를 구분하지 못한다.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자유는 개인이 사회적 제약이나 법적 제약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허용된 행위로서의 자유는 개인이 사회적 제약이나 법적 제약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독립으로서의 자유는 중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며 동등한 주체로서 개인의 지위를 의미한다.

14 허용된 행동영역으로서의 자유(이하 ‘행동의 자유’라 함)는, 무차별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행동의 형태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범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든 법은 항상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감소시킨다. 살인을 금지하는 좋은 법도,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나쁜 법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행동의 자유를 감소시키며, 아마도 감소의 정도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우발적 살인까지 포함하며 살인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하여 뭔가 정치적으로 법에 금지된 것까지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살인범과 국가보안법위반 정치사범의 수를 비교해보라)

따라서 살인금지나 정치발언금지 같은 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가 아니라(왜냐하면 행동의 자유는 어떤 법이든지 항상 제한되므로) 그러한 제한이 평등이나 안전 또는 공중의 쾌적함(public amenity)과 같이 경쟁하는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느냐이다. 만일 사회철학자가 행동의 자유에 높은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경쟁하는 가치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는 논변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그 철학자가 행동의 자유를 선호하는 일반적 논변에 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면, 그의 논변은 적어도 그 일반적 자유가 우선되는 정도까지는(pro tanto) 독점을 형성할 자유나 가게 유리장을 박살낼 자유도 옹호하는 셈이 된다.

15 그러나 독립으로서의 자유(이하 ‘독립의 자유’라 함)는 그와 같은 방식의 무차별한 개념이 아니다. 독립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살인이나 독점을 금지하는 법은 시민 일반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사회철학자가 독립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둔다고 하여도, 꼭 그가 필연적으로 안보나 공중의 쾌적함과 같은 가치를 상대적 의미에서도 평가절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철학자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을, 독립과 평등을 선호하는 일반적 논변에 기하여 펼치더라도, 다른 가치에 비해 행동의 자유를 자동적으로 더 선호하는 논변을 펼치는 것이 되지 않는다.

6 밀의 원리가 무정부주의로 향한다는 힘멜파브의 비판은 밀의 원리가 행동의 자유를 증진

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은 밀의 원리는, 독립의 자유라는 복합적 이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벤담과 밀의 아버지인 존 밀은 정치적 독립성이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것, 즉 민주주의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다. 밀은 독립성을 평등의 또 하나의 차원으로 보았다. 밀은 개인의 독립성이 평등한 투표권을 부인하는 정치절차 뿐 아니라, 평등한 존중을 부인하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공통의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들, 예를 들어 폭력과 독점을 금하는 법들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도 모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일정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하여서만 그 사람을 제약하는 법은 그 사람을 심대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그 법들은 그 사람을 다수를 형성하는 자들에 대해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가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독립성을 부인한다. 밀은 존엄성, 개성, 그리고 모욕과 같은 이들 도덕적 개념의 정치적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정치이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고 자유주의의 기본적 어휘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복합적인 사상이었지, 보다 단순한 행동의 자유가 아니었다.

17 자기관여적 행위와 타인관여적 행위의 구분은 행동의 자유와 다른 가치 간의 임의적인 타협점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규명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구분선은 평등한 존중을 가져오는 규제와 평등한 존중을 부인하는 규제 사이의 구분선으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그 구분선을 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상이한 경우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그 구분선을 그렸던 것이다. 그는 그의 비판자들이 지적했던 논점에 대해 이미 동의했다. 즉, 어떠한 행위도,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예를 들어 밀은 어떤 사람이 혼자 술을 퍼마셔서 아프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슬퍼할 주위의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퍼마시기로 하는 결정은 자기관여적인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결과되는 고통이 실재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개성(personality)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가 어떤 개성을 가지라고 그 구성원에게 지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구성원이 동정이나 후회와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행위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개성을 가지라고 지시하는 사회의 권한이야말로 밀이 자유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8 자유의 두 개념이 이와 같이 구분되고 나면 힉멜파브 양의 주장, 즉 <자유론>에서 전개된 밀의 논변이 다른 밀의 저작에서 전개된 논변과 모순된다는 주장은 붕괴하고 만다.

19 젊은 밀이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자유의 '원래' 의미는 물론 행동의 자유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지에 드러난 논지에 있어서나 정신에 있어서나 그 시절의 것이 <자유론>과 모순되는 것은 없다. 힉멜파브는 밀이 쓴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1772-1834) 영국의 시인·비평가]에 관한 소논문에서도 한 문단을 인용한다. 거기서 밀은 좋은 사회에서 교육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하나로 인간을 자신의 개인적 충동과 목적에 종속시키는 습관과 힘을 훈련시켜 사회의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일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간을 사회의 목적을 받아들여게끔 교육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여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고유한 개성을 다른 이들의 그러한 이익이 문제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20 그녀는 밀이 같은 소논문에서 국민으로서 느끼는 감정(feeling of nationality)을 통상적인 공중의 철학으로 승인한 것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러한 종류의 국민감정이 <자유론>이 주장하는 개별성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그녀는 밀이 위와 같은 승인의 문장 뒤에 다음과 같이 즉각 덧붙인 것을 언급하는 일을 잊었다.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유일한 형태의 국민감정은, 개인의 자유 원리와 사회적 평등의 원리를 공통적으로 존중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국민감정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초보적인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콜리지에 관한 소논문에서 밀이 교육과 국민감정을 자유라는 계몽사상가의 목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서 언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과 국민감정은 활력있고 거침없는 성격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힉멜파브가 언급하는 모든 밀의 에세이는 각각 <자유론>의 논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준다. 즉, 개성의 독립성이 행동의 자유와 무정부성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특별하고 명시적인 조건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 말이다.

21 힉멜파브가 이와 같은 점을 이해했다면,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지성적 자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니 하는 멍청한 명제를 반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사회주의자였던 밀이, 그러한 측면에서 비일관성에 빠졌다고 타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유가 허용된 행동의 범위를 의미한다면 경제적 행동의 자유와 지성의 자유는 동일한 발판 위에서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가 독립을 의미한다면 두 자유는 분명히 구분될 뿐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는 서로 상충하게 된다.

22 미연방대법원은 수십년전에 헌법이 자유를 정말로 보호한다면, 고용자가 무엇이든 원하는 조건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판결했을 때 (그리고 그 판례를 일정 기간 유지했을 때) 행동의 자유와 독립의 자유를 혼동했던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성적 독립성과 정치적 폭력을 서술할 때 모두 “허용가능성 permissiveness”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두 행동이 오직 허용가능한 정도에서 다르다고 시사할 때 이 두 사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급진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규명할 때 이 두 사상을 혼동하여, 개인의 권리가 사회 부정의를 낳은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밀의 모든 저작은 이러한 종류의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그 해독제이다.